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가치 및 옹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선영(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강사)

I. 서 론

1. 문제제기

사회복지사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개입하는데 있어서 독특한 가치, 지식 및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본질적으로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해결은 그 문제를 둘러싼 사회의 가치관과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실천 전문가, 정책입안자 등의 가치와 견해에 따라 그 개념 자체가 크게 좌우된다(Cohen, 1964; Choi, 1977). 따라서 이들 해당 전문가들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복지 개입 및 실천의 방향제시에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최근 서구의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실천의 가치관은 종래의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중심적 가치에서 환경 즉, 사회중심적 가치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천 방향도 종래의 미시적 차원의 클라이언트 중심의 임상적 실천에서 사회정의의 가치를 앞세워 사회환경 변화에 개입하는 옹호활동이 강조되고 있다(Specht, 1990; Haynes, 1998; Abramovitz, 1998; Gibelman, 1999; 조휘일, 2003). 사회복지 옹호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파동 과정을 겪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 실천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정치적 역할이 신장되면서 옹호 활동은 한층 복잡하고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Mickelson, 1995).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의식적으로는 사회복지 옹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태영(200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행동(social action)의 성향은 그리 낮은 편은 아니나 사회행동에 대한 참여경험이 매우 낮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리서(Reeser, 1986)는 사회복지의 실천대상이 보편적 인구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을 우려하며 점차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빈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옹호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옹호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회복지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 가치와 같은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 본 연구는 2004년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수 있다. 래디안(Radian, 2000)은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받도록 돕는 사회복지 옹호에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복지 교육, 직무에 대한 열정 등과 함께 사회복지 가치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치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현실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실천가들이 갈등적인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원칙, 더 나아가서 보다 구체적인 지침으로서의 가치의 기본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치를 적용하는 사회복지사의 시각과 그들의 실질적 원조 활동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Reeser & Epstein, 1990; Harbison, 1991; Specht & Courtney, 1994; Haynes 외, 1997; Crabtree, 2000, Radian, 2000). 이러한 경향은 1996년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윤리강령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NASW 역사상 처음으로 윤리강령에 공식적으로 전문직의 사명에 대한 진술과 전문직의 핵심가치를 제시하여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주제를 강조하였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은 성실(integrity), 능력(competence), 개인의 존엄 및 가치(dignity and worth of a person), 인간관계의 중요성(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 사회정의(social justice), 서비스(service) 등 여섯가지를 사회복지전문직의 핵심 가치로 표명하였다(NASW, 1996). 윤리강령에 나타난 사회복지전문직 가치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이들 가치의 차원을 크게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다(Crabtree, 2000; Specht & Courtney, 1994; Imre, 1982).

이렇듯 사회복지의 사회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명이 강조되기 시작하자 최근 들어 사회복지가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맞는 실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고와 반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크랩트리(Crabtree, 2000)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핵심 가치를 지향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들을 지향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화 과정에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것은 미국 사회가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 지식과 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미시적이고 임상적인 실천을 더 중시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억압되고 박탈된 소외 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정의 등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인간원조 전문직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복지가 '전문성 추구'라는 명제 하에 각종 치료 형태의 임상기반 실천을 중심으로 개인적 차원의 가치 추구에 보다 더 치중해 오고 있는 현실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사회복지의 사회복지직 자체가 유지해 온 역사적인 사회적 사명 예를 들면, 사회정의 실현과 같은 사회적 차원의 가치 구현은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전문성을 표방한 워커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서 심리사회치료 위주의 직접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고 있다. 사회복지가 유사 인간 원조 전문직과 차별성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향상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있는 전문직이라는 생각을 확고히 하는데 있어서, 오늘날 사회복지가 보이고 있는 심리사회치료적 추세는 전문직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과 같은 복지대상과 직접 일하거나 사회제도적 개선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적극 개입한다'고 하여 사회복지의 목표가 개인과 사회의 동시적 변화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은 불평등 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개입행동에서 심한 역할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즉, '옹호자(advocate)'나 '행동가(activist)'의 역할보다는 주로 '치료자(therapist)', '조력자(enabler)'나 '격려자(encourager)', '교육자(educator)', '상담가(counselor)', '중개자(broker)'의 역할을 선호하며 주로 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편재된 가치성향과 그 적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 교육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임레(Imre, 1982), 스펙트와 코트니(Specht & Courtney, 1994), 크랩트리(Crabtree, 2000) 등은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가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이 보이고 있는 편재된 가치성향과 실천에서의 제한된 역할 수행의 이유는, 사회복지 전공 교육에서 사회복지 가치 등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만을 교육받을 뿐 이를 실천에 적용하고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나 윤리의식을 심어주는데 소홀했으며, 사회복지 기관 역시 윤리적 실천을 위한 기관 차원의 규제가 매우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복지의 미시적(micro) 차원의 전문 실천을 강조한 일부 서구적 추세에 영향을 강하게 받아, 거시적(macro) 차원의 실천인 지역복지실천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해왔고, 미시적 차원의 개입과 절차를 강조하는 임상 위주의 교육을 주로 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보다 많은 자원의 확보와 향상된 클라이언트의 처우를 위해 일하는 옹호자(advocate)로서의 전문가 역할이 간과되어왔음이 사실이다.

국가의 공식적 자원과 지원체계가 부족한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즉, 새로운 사회정책 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야 말로, 한국과 같이 제도적으로 사회복지 대책이 미흡한 나라일수록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조휘일, 2003). 사회복지사는 특정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집단을 위한 사례관리 차원의 개입에서만 만족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복지 여건 마련과 개선에 직접 참여하고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복지 옹호활동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우선적 과제는 사회복지사들이 균형 잡힌 사회복지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인 만큼 사회복지 제 가치를 인식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가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임상이나 정책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실천 방법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를 기반으로 심리학적 시각과 사회학적 시각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가치, 특히 사회적 차원의 가치형성에 바람직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가치가 사회복지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가치를 수용하고 형성하는데 있어 사회복지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사회복지사들은 어떠한 가치를 중요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가치들이 사회복지 옹호에 대한 태도와 개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가치를 형성하고 사회복지 옹호실천을 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또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옹호(옹호태도 및 옹호개입) 사이에 매개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2)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3) 사회복지 가치가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사회복지 옹호실천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의 직접효과 뿐 아니라,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옹

호실천 사이에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간접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복지 가치형성 및 옹호 실천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또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중요성을 파악함으로써, 사회복지 옹호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시 차원 개입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 추세를 다소 지양하고 상대적으로 미약한 중시 또는 거시 차원의 접근을 고양하여, 양자간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일반주의 사회복지 실천의 통합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옹호의 개념

옹호, 사회정의 그리고 사회개혁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회복지학과 결합되어온 용어이다 (Gibelman, 1999). 미국사회사업가협회 윤리강령(1996)에서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옹호를 광범위하게 실천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의무화하였다. 카민스키와 워스리는 옹호야말로 사회복지를 다른 인간 원조 전문직들과 구별해 줄 수 있는 고유의 특징적 행동 중 하나라고 강조하였다(Kaminski & Walmsley, 1995). 사회복지대백과사전에서는 옹호를 '사회정의를 확보·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 이상의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신해서 일련의 조치를 직접 주장, 방어, 개입, 지지, 추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Mickelson, 1995). Schneider(2002)는 많은 연구문헌에서 발견된 90가지 이상의 옹호개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 옹호의 개념을 정리하였는데, 옹호는 대신하여 말하거나 탄원하기, 다른 사람 대표하기, 조치 취하기, 변화를 촉진하기, 권리와 혜택에 접근하기, 동지(partisan)로 일하기, 영향력과 정치적 기술들 과시하기, 사회정의 보장하기, 클라이언트 역량강화하기, 클라이언트 문제에 동일시하기, 법적 기반 사용하기 등 11가지의 차원의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옹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통용되는 다른 하나의 용어로 '사회행동(social action)'이 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옹호 보다 사회행동이라는 용어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사회행동은 특정 취약집단이나 계층의 복지욕구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옹호'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옹호(advocacy)'와 '사회행동(social action)'은 상호 교환적 개념으로서 이 두 가지 모두 사회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시각(Burghardt, 1986; Reisch, 1986; Radian, 2000)이 한 가지이며,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사회행동이라는 큰 틀 속에 옹호가 하나의 역할로 있다는 위계적 개념(Kutchins, 1978; Schneider, 2001)으로 보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본 연구자는 전자의 입장에서 사회복지 옹호가 사회행동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써 선택되고 한국 사회에 일반주의 실천이 일반화되기를 희망하는 의미에서, 두 용어를 상호 교환적 시각에서 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 옹호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 개선과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동하는 전문가가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옹호의 이러한 개념 정의는 사회복지사의 사회행동을 연구한 엽스테인(Epstein, 1968)과 포터(Potter, 1979), 리서(Reeser, 1986) 등의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2. 사회복지 가치

사회복지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치의 차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미국사회사업가협회 윤리강령에서 제시하는 여섯 가지 사회복지 핵심가치를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로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 핵심가치와 이를 지지하는 윤리적 원칙과 개입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amer, 2000; Crabtree, 2000).

첫 번째 사회복지 가치는 '서비스(service)'이다. 미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는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윤리적 원칙으로 "사회복지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곤궁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사회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개입 스타일로는 "전문적 기술의 일부분을 동원하거나 더 큰 지역사회에 환원할 의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자신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람들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식과 가치와 기술을 사용하고, 물질적 보상 없이 전문적 기술을 자발적으로 할애하는 것 등이 '서비스'의 가치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이다. 미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는 사회정의의 가치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란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의 불의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사회정의를 위한 개입 스타일로는 "주로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사회 부정의 등에 변화 노력의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취약하고 억압받는 사람들과 집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사회변화 노력은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사회 부정의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며, 이러한 활동들은 억압 및 문화적인 인종차별에 민감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그리고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 사회복지 가치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dignity and worth of a person)'이다. 미국사회사업가협회에서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란 "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개입 스타일로는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 존경하는 태도, 개인차와 문화적 다양성을 잊지 않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차이와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고려하는 보호와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각 개인을 대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자아결정을 증진시키는데 힘쓴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변화시키고 해결하는 기회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적 원칙, 그리고 전문직의 윤리적 기준에 있어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네 번째 사회복지 가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이다. 이에 대한 윤리적 원칙은 "사회복지사들은 중추적인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입 스타일로는 "인간관계가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이해하며 원조과정에서 동반자로서 관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가족, 사회집단, 조직,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 개혁,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대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사의 '성실(integrity)'이다. 이에 대한 윤리적 원칙은 "사회복지사들은 진심어린 태도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의 개입 스타일은 "윤리강령에 일치된 태도로 실천하는 것"

이다. 즉,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전문직의 사명, 가치, 윤리 원칙, 윤리 기준을 인식하고 그것들에 일치하는 태도로 실천해야 하며,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그들이 속한 기관에서 윤리적 실천을 증진해야 한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사의 '능력(competence)'이다. 이에 대한 윤리적 원칙은 "사회복지사들은 유능하게 실천하고, 전문적 기술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입 스타일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실천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증진시키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며, 전문직의 기본 지식에 기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상기한 사회복지의 여섯 가지 가치들은 사회복지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실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가치로부터 시작하여 더 큰 사회에 대한 개인의 책임까지 확장되는 서비스와 사회정의로 이어지는 사회적 차원의 가치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차원의 핵심가치는 특히 자기 자신을 옹호할 능력이 부족한 취약 집단과 관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성 및 사회정의에 대한 도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Crabtree(2000)는 이들 여섯 가지 핵심가치들 중 능력과 성실은 주로 사회복지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해석했고, 이에 수반되는 윤리적 원칙들은 개인적인 행동 및 실천과 관련 있다고 보고 이를 '개인적 차원의 가치(personal values)'라고 하였다. 가치의 다음 수준은 사회복지사와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까지 확장된 가치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대인관계 차원의 가치(interpersonal values)'라고 하였다. 이는 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가치로서 윤리강령 안에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기술은 원조과정 내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는 특히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과 관계있다고 하였다. 이 가치의 차원은 자기-결정, 다양성에 대한 존중, 개인의 변화 능력 등을 포함한다. 사회복지 핵심가치의 마지막 차원은 '사회적 차원의 가치(societal values)'로서 여기에는 서비스와 사회정의가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사회사업가협회 윤리강령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사회복지 핵심가치를 사회복지 가치로 정의하되, 사회복지 가치의 차원을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중간적 성격을 보이는 대인관계 차원의 가치 즉,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개인의 존엄 및 가치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사의 성실성과 능력을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로 서비스와 사회정의를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사회복지 교육

사회복지 교육 관련 연구에서 사회복지 교육은 크게 두 차원으로 나뉘어 고찰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에서 교육 관련 변인으로 최종학위를 묻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사회복지 교육을 학위소지와 자격증 등으로 파악하는 것과 다양한 사회복지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이해와 성과와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교육을 1) 사회복지를 전공한 최종학위의 유형(학부전공 학사/ 학부 비전공 석사/ 학부전공 일반대학원 석사/ 학부전공 특수(행정)대학원 석사), 2)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유형(사회복지사 자격증/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3) 사회복지 교육성과로서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5대 교과영역-실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습, 정책, 조사-에 대한 자기효능감/ 실천기술-정신치료, 사례관리, 평가 등에서의 실천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 고찰

1) 사회복지 교육과 옹호의 관계

래디안(Radian, 2000)은 사회행동과 사회교육간의 관계 연구에서 사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사회복지 교육의 영향임을 설명하였다. 델크(Delk, 2002)는 전문직간의 옹호 실천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복지 학위 형태와 사회복지 전문 자격증이 전문직간의 사회복지 옹호의 의미와 태도, 옹호 개입, 옹호 역할, 옹호 필요성, 옹호 교육훈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그는 옹호의 영역을 사례옹호(case advocacy)와 계층옹호(class advocacy)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 학위 형태와 사례옹호 태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사회복지 학위 형태와 사례옹호 개입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계층옹호에 대한 태도와 계층옹호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학위 형태가 양쪽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그는 임상 세팅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와 전문 자격증 소지자 간의 옹호를 비교하였는데 자격증 유형과 사례옹호 태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자격증 유형과 옹호개입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계층옹호 태도와 계층옹호 개입 정도에 있어서는 자격증 유형이 양쪽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이태영(2002)의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에 대한 태도 및 행위 조사연구' 결과에서는 사회복지사의 학력이 대졸일수록 대학원 졸업의 사회복지사보다 행동주의적 성향이 높았다. 반면, 사회복지사의 학력과 사회행동 전략 선택에 있어 교육수준과 대립적인 전략 선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엡스테인(Epstein, 1968)과 리서(Resser, 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사회복지 교육(학위 형태와 자격증)과 사회복지 옹호태도와 옹호개입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사회복지 옹호 관련 연구는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며,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커리큘럼 내용이나 교육 훈련 방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한국의 사회사업가 윤리강령에서는 옹호가 사회복지사의 의무인 것으로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실천에서 옹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많지 않다. 사회복지 옹호는 미시와 거시차원의 개입 모두에서 다 가능하다. 그러나 교과내용 중에서도 어떤 점을 강조하여 교육하였느냐에 따라 학생이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준비시키고 옹호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학사 및 석사라는 학위의 유형, 전공교육 후 취득한 자격증의 유형, 일반주의(generalist) 실천을 토대로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교육성과(사회복지 자기효능감) 등이 사회복지 옹호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향후 사회복지 교육의 발전방향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사회복지 교육과 가치의 관계

국외의 가치관련 최근 연구 동향은 사회복지가 타 전문직과 구분되는 전문직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차원의 가치와 열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들은, 전문성의 심화 수준이 높을수록 즉, 교육정도가 높고 전문 자격증을 소지할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 수준이 낮으며 개인적 차원의 가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Specht & Courtney, 1994; Crabtree, 2000).

임레(Imre, 1982)는 고급 임상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의 사회복지사 3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국의 사회복지사들은 실증적 적용에 필요한 지식을 요구하는 현장의 요구에 지나치게 부응한 나머지, 사회복지 고유의 사명은 상대적으로 멀리한 채 기술과 지식 추구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날 사회복지사들이 보이고 있는 사회복지 가치의 불균형적 선호현상에 영향을 끼친 요소중 하나가 대학의 사회복지 교육이라고 언급하면서 현행 사회복지 교육의 방향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복지의 고유 열정을 희생시키고 기술에 대한 과도한 신뢰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부재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 상태로 사회복지가 지속되는 한 현재 형성된 사회복지전문직의 위치마저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제기 하였다. 스펙트와 코트니(1994) 역시 사회복지사들은 개인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 실천에 보다 초점을 두어 사회정의 추구하고 같은 사회복지의 원천적인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공통적 주장은 사회복지가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기술과 지식의 함양 및 적용에 편중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고유의 원천적 특성인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와 열정을 간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전문직이 위기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크랩트리(Crabtree, 2000)는 '전문직 획득과 사회복지 가치 간의 관계 분석' 에서 미국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사회복지 가치 적용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에서는 사회복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또한 최종학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보다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선호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한국의 가치 관련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가치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미원, 1982; 이종미, 1984; 이윤정, 1987; 김만지, 1993; 윤기영, 1997; 안문기, 2000; 이현주, 2000; 송진옥, 2001; 최금주, 2001; 류순애, 2002). 쉘(Scheel, 1997)과 크랩트리(2000)외에도 생크(Shank, 1993)와 안소현(1999)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 교육 수준(학위)과 취득한 자격증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윤리 형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송진옥(2001), 이현주(2000), 최금주(2001)는 교육수준(학위)뿐만 아니라 윤리 및 가치 교과목 이수가 사회복지 윤리 형성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했다.

1994년 미국사회복지교육위원회에서 제시한 교과과정에서는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 영역에 대해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의 내용에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실무에서 적용해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도록 해야 하며, 가치와 윤리적 모순과 갈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외국의 사회복지 가치 관련 연구는 최종학위가 높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들이 선호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사회복지학문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경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sser & Epstein, 1990; Moore & Urwin, 1991; Harbison, 1991; Specht & Courtney, 1994; Scheel, 1997; Haynes 외, 1997; Crabtree, 2000; Ain, 2001; Taylor, 2002). 그러나 이들 연구들 역시 사회복지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회복지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 교육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통제의 노력이 부족하여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측정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문성을 위시해서 지식 및 기술만을 우선시하는 일부 사회복지 교육의 방향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

회정의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사회적 차원의 가치는 잊혀지기 쉬운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교육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두 사회복지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교육이 일반주의 실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학위의 종류, 취득한 자격증, 일반주의 실천을 토대로 전문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성과로서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정도가 사회복지 가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3) 사회복지 가치와 옹호의 관계

로케쉬는 태도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관한 비교적 지속적인 신념의 조직으로서 인간의 행동이나 반응의 준비상태이며, 가치는 태도보다 근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태도의 바탕이 되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였다(Rokeach, 1970). 따라서 어떤 실천에 있어 행동이나 반응을 일으키는 준비상태라고 할 수 있는 태도에 앞서 가치가 선행하는 조건임을 알 수 있다(Sweatt, 1999).

브래스웨이트(Braithwaite, 1994)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개인의 가치 지향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들의 태도 및 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개인적 가치에 비해 사회적 가치는 보수 대 급진이라는 사회적 행동 목표에 대한 태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카루자, 제본, 래비노위츠와 브릭맨(Karuz, Zevon, Rabinowitz & Brickman, 1982), 맥고번, 뉴만과 코프타(McGovern, Newman & Kopta, 1986) 등과 마찬가지로 김혜란(Kim, 1993)은 '위커의 지향성에 관한 연구'에서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지향성이 그들의 개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로케쉬의 가치 연구에서 사회적 가치는 다른 정치정당, 정치 지도자, 사회 정책을 옹호하는 예측 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Rokeach, 1973), 로케쉬는 가치가 사회행동에 개입하게 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단일 행동은 그것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가치와 같은 가상 변인로부터 단일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Rokeach, 1973; Schwartz, 1969; Sweatt,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가치 선호와 체계적인 일련의 행동을 관계 짓는 것이 가능하다. 로케쉬는 데모에 가담한 사람들과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우선 가치를 구분했을 뿐만 아니라, 데모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시민권 문제와 사회정의에 더 공감하는 우선적인 사회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Sweatt, 1999).

또한 엡스테인(1969)은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변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사회복지 목표 설정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리서(1986)는 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사회행동 및 옹호에 대한 엇갈린 시각과 가치가 대립 및 합의의 전략을 펼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이 갖는 사회적 가치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그들의 사회적 행동 또는 옹호에 대한 태도 및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자들은 사회행동이나 옹호에 대해 개인이 갖는 사회적 가치의 영향력은 파악하였으나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갖는 고유의 영향력 파악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사회복지 옹호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4) 기타 사회복지 옹호 및 가치와 관련된 변인들

본 연구는 신뢰도 있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성, 연령, 종교, 주관적 경제상태, 최종학력 경과년도

등의 일반적 특성과 직위, 실천현장, 근무연수 등의 기관 관련 특성, 그리고 통제소재, 자존감 등의 개인 특성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성, 연령, 종교, 경제적 수준, 최종학력 경과년도 등은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반적 특성이다(Smith, 1980). 일반적 특성 변인들은 연구에 있어 어떤 요인들이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Wilson & Musick, 1997),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사회복지 가치 및 옹호와 각각 관련되고 있다(Harbison, 1991; Scheel, 1997; Crabtree, 2000; Ain, 2001; Taylor, 2002; 오끼다가요꼬, 1994; 안소현 1999; 강현기, 1999; 이현주, 2000; 송진옥, 2000; 최금주, 2001; Reeser, 1986; Sweatt, 1999; Cruz, 2001; Delk, 2002; 이태영, 2002).

사회복지사가 지향하는 가치와 옹호 실천은 전공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하비슨(1991), 쉘(1997), 크랩트리(2000), 애인(Ain, 2001), 테일러(Taylor, 2002), 오끼다가요꼬(1994), 안소현(1999), 강현기(1999), 이현주(2000), 송진옥(2001), 최금주(2001) 등은 사회복지 가치 관련 연구에서 사회복지사가 소속해서 실천하는 기관의 종류(실천 세팅), 실천대상, 실무경력 등을 주요하게 고려하였다. 크랩트리(2000)도 사회복지사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그들의 실천현장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며, 오끼다가요꼬(1994), 안소현(1999), 송진옥(2001), 이현주(2000)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근무경력, 직위, 기관의 종류, 업무형태를 분석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오끼다가요꼬는 일본의 사회복지사가 가치갈등을 겪을 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조직요소, 자원, 워커의 속성(워커의 지위, 근무연수, 직업에 대한 동기), 임상적 요소(법제도의 적용, 자원의 활용, 의사소통 기술)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리서(1986), 스웨트(1999), 델크(2002) 등도 사회복지 옹호 관련 연구에서 사회복지사가 소속해서 일하는 기관(실천 현장), 직위, 근무연한 등의 특성이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옹호의 목적이 클라이언트를 임파워먼트 하는 것이고(Mickelson, 1995), 사회복지 교육의 목적이 임파워링 하는 사람을 임파워 하는 것(Holden, 2002)이기 때문에,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자존감(self-esteem)'과 '통제소재(locus of control)'를 통제변인으로 설정 할 수 있다. 박원우(1998)는 개인의 자기존중감이 증대되어야 진정한 임파워먼트가 촉진될 수 있다고 하였고, 반두라(Bandura, 1977)와 브로크너(Brockner, 1988)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아진다고 함으로써 임파워먼트를 실행할 잠재력으로서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클루터벅(Clutterbuck, 1994)과 스프레저(Spreitzer, 1995)는 임파워먼트의 실행을 위한 잠재력 요인으로서 통제소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토마스 와 벨투우즈(Thomas & Velthouse, 1990)도 개인의 자기통제 성향 및 대인통제 성향에 따라 성원의 임파워먼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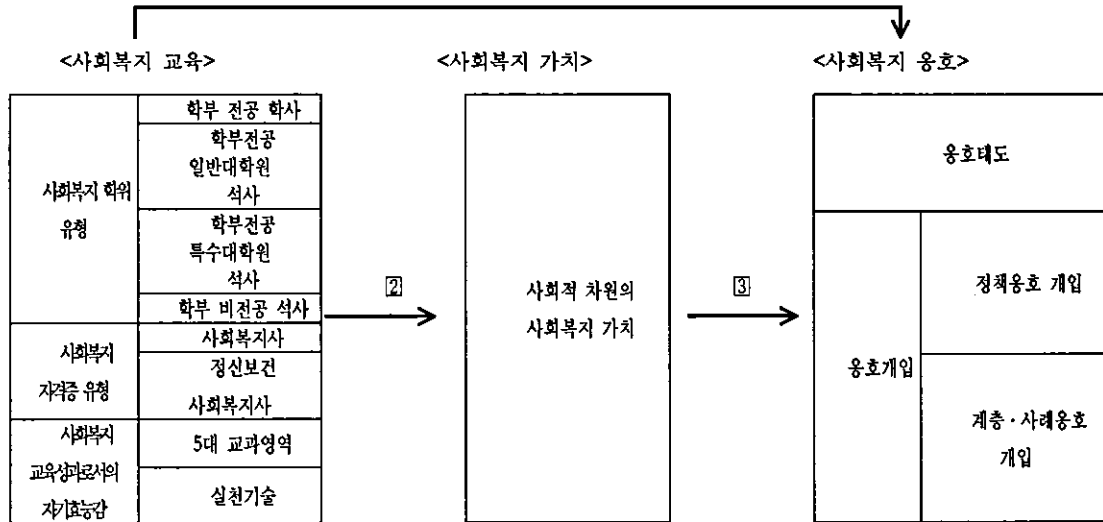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교육이 다양한 사회복지 제 가치를 함양하고 사회복지 옹호를 실천하도록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복지사의 기관 관련 특성, 개인특성 등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개념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옹호 태도와 개입에 영향을 미

치는지,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 옹호태도와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옹호 태도와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III-1>과 같은 연구의 개념틀 도출이 가능하다.



통제변수: 일반적 특성(성, 연령, 종교, 주관적 경제력, 최종학력 경과년도), 기관관련 특성(직위, 실천현장*, 근무연수), 개인특성(자존감, 통제소재)

<그림 III-1> 개념틀

2. 연구가설

- 가설 1.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사회복지 교육은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 옹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독립변인으로 넣은 회귀식에서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옹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사회복지 교육을 독립변인으로 넣은 회귀식에서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 옹호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보다 작을 것이다).

3. 조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가(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

1)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는 회귀식 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회귀식 ②,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충족되면 회귀식 ③,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넣고 회귀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회귀식 ①보다 회귀식 ③에서 줄어들어야 하며, 유의미하지 않게 될 경우 강력한 매개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론과 케니의 매개변수 검증법에 의하면 위의 세 가지 가설이 모두 충족된다면, 마지막으로 회귀식 3에서 β 가 줄어드는 정도를 비교해 보고 매개변인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 2002년 12월 말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수는 69,323명으로 남자 17,884명, 여자 51,439명이다(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등록상황, 2002). 또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2003년 6월말 현재 전국 자격증 소지자 수가 457명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그 중에서도 서울 및 경인지역의 사회복지사 수는 2002년 말 현재 2,037명,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는 2003년 6월 말 현재 222명이다. 표집의 대상은 전국규모가 아닌 서울·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업이 가장 잘 표준화되고 편차가 적은 지역이 서울 및 경인지역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의 표집 계획 및 표집결과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조사대상자의 표집 계획 및 결과

(단위: 명, %)

	모집단 (서울, 경인지역)			표집 계획				표집 결과			
	수	소계	총계	할당율	수	소계	총계	회수율			
사회복지사 ²⁾	2,037	종합사회복지관	300	450	22.09%	174	294	65.3%			
		노인복지관	50			36					
		장애인복지관	50			49					
		동사무소	50			35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³⁾	222	병(의)원	80	220	100%	84	486	86.4%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70			40					
		사회복귀시설	70			64					
		기타				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1 표본추출 단위는 사회복지 기관(사회복지사 집단: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동사무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집단: 병의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이며, 제2 표본추출 단위는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개인이며, 사회복지사가 표본추출의 요소이다. 표본들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보고하는 회원기관 리스트,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동사무소 리스트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정신보건기관총람(2003)에 실려 있는 종별 기관 리스트이다.

'사회복지사의 표본추출'에 있어서는 확률표본추출법의 층화표본추출로 연구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사회복지관의 종별 규모가 가장 크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도 연구 영역에 포함시켜 그들의 가치 및 옹호활동 실태도 함께 조사하였다. 종합사회복지관의 표집은 서울시 및 경인지역의 복지관 152곳 가운데 70곳을 무작위 추출하여 각 기관별로 전화를 걸어 사회복지사의 총 수를 파악하였고, 그 가운데 설문에 응해줄 의사가 있는 사회복지사의 수를 파악한 뒤 최소 3부에서 최대 10부의 설문지를 기관에 우편 발송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의 표집은 중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등록상황, 2002

3) 서동우 외 8인, 2003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 보고서, 보건사회연구원, 2004.

별로 각 6개 기관을 편의 표집하여 각 기관별로 5개씩의 설문지를 보냈으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표집을 위해서는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6개 구를 임의 선정하여 각 구에 있는 동사무소 가운데 설문지의 의사가 있는 동사무소를 소개받아 총 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표집은 서울 및 경인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00명,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50명,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50명,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50명, 총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서울·경인지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037명의 약 1/4인구(22.09%)에 달하는 표집을 실시하였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표본추출'은 서울·경인 지역을 대상으로 220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 학회의 춘계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서울·경인지부 모임 시에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4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450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220부, 총 670부를 배포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 450부 가운데 384부(85.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20부 가운데 192부(86.4%), 총 486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연수원(보건사회연구원 훈련부)을 졸업한 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응답한 설문지 13부와 응답항목 중 무응답이 있는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46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 옹호란 사회정의 실천을 위해 사회 개선과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문가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옹호 실천을 사회복지 옹호태도와 사회복지 옹호개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옹호태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변화 지향 척도'를, 옹호개입의 측정을 위해서는 옹호의 정의를 토대로 하여 만든 '사회복지 옹호개입 척도'로 측정한다.

1) 사회복지 옹호

(1) 옹호태도

사회복지 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변화지향 태도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다. 이 척도는 널(Neal)이 1965년에 개발하고 하비슨(Harbison, J. R.)이 1991년도에 사용한 적이 있다. 널이 개발한 '사회 변화 지향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리커트식 6점 척도로 개발된 이 척도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동의한다'까지의 동의의 강도를 말하도록 고안되었다. 널이 개발한 기존 척도의 15개 문항 간 신뢰도 α 는 .8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널의 '사회변화 지향 척도' 15문항을 그대로 번안하여 '사회복지 옹호태도 척도'로 사용하였다(Harbison, 199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옹호태도 척도의 신뢰도 α 는 .65로 나타났다.

(2) 옹호개입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 옹호개입이란 사회정의 실천을 위해 사회 변화를 수용하며 클라이언트의 이

익을 추구하는 전문가 활동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측정을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옹호 개입을 측정할 수 있는 11개 문항을 자가 개발하여 사용한다. 응답의 범위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부터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조금 사용하는 편이다', '자주 사용한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구성된다.

사회복지 옹호개입 척도의 사용에 앞서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외부 문항과의 상관성 검증을 통하여 척도의 타당도를 확보하고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뢰도 분석 결과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신뢰도 α 는 .88로 나타났으며, 10번 문항을 제외하면 신뢰도 α 가 .89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요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겐값 1.0을 기준으로 요인을 산출하고, 요인을 직교회전의 베리맥스(varimax)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된 총분산을 먼저 살펴보면, 개별 요인의 변량 비율을 말하는 아이겐값(Eigenvalue)⁴⁾이 1.0 이상인 요인은 2개로 나타났으며, 그 2개 요인이 전체자료의 57.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들이 전체자료를 설명하는 총분산이 60%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신뢰도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10번 문항을 뺀 뒤 10개 요인을 가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가 .910으로 나타났으며, 바르렛(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10개 요인의 공통성(communality)이 모두 0.4 이상으로 나타났으며⁵⁾, 아이겐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2개로서 그 2개 요인이 전체자료를 60.9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전된 성분행렬에서 나타난 요인부하량⁶⁾의 값은 .50~.84였으며, 요인들은 2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문항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1 요인은 설문지의 7, 11, 4, 8, 3번 문항으로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복지 옹호개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2 요인은 설문지의 5, 2, 9, 1, 6번 문항으로서 중간·미시적 차원의 사회복지 옹호개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소개한 바가 있는 내용과 결부하여, 1 요인을 '정책옹호'로, 2 요인을 '계층 및 사례옹호'로 명명하였다.

<표 III-2> 요인분석 후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회복지 옹호개입 척도

요인	문항 번호	사회복지 옹호개입 척도의 차원
1 요인	7, 11, 4, 8, 3	정책옹호(거시적 차원)
2 요인	5, 2, 9, 1, 6	계층 및 사례옹호(중간·미시적 차원)

셋째, 쉬나이더와 레스터(Schenider & Lester, 2001)의 사례옹호와 계층옹호의 정의, 잔슨(Jansson, 2003)의 정책옹호 정의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복지 옹호개입 척도' 10문항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기준타당도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1요인으로 구분된 다섯 문항들로 이루어진 거시적 차원의 옹호개입 즉, 정책옹호와 잔슨이 말하는 정책옹호 정의와의 상관관계가 .724로 나타났다($p < .01$). 2요인으

4) 아이겐값이 1.0 이하라는 것은 한 변수의 변량(1.0)도 채 설명하지 못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통요인으로 추출할 의미가 없게된다. 따라서 보통 아이겐값이 1.0을 요인추출의 준거로 삼는다(양병화, 2000).

5) 공통분산값이 낮으면 요인에 있어서 변수의 중요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공통분산 값이 적어도 총분산의 60% 정도를 설명해주는 요인까지 선정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김계수, 2004).

6) 요인부하량의 값이 크면 클수록 해당 요인과의 상관이 높다고 해석하는데 보통의 준거는 $\pm .30 \sim \pm .40$ 이상, 엄격하게는 $\pm .50$ 이다(양병화, 2000).

로 구분된 다섯 문항들로 이루어진 중간·미시적 차원의 옹호개입 즉, 계층 및 사례옹호와 슈나이더와 레스터가 정의한 사례옹호와의 상관관계가 .497($p<.01$), 계층옹호와의 상관관계가 .554($p<.01$)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문헌연구를 토대로 자가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검증하여 이 척도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책옹호와 계층 및 사례옹호 척도의 신뢰도 α 는 .65로 나타났다.

2) 사회복지 가치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가치란 미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에서 정의한 사회복지 핵심 가치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크랩트리(Crabtree, 2000)가 사용한 '사회복지 가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한다. 크랩트리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사회복지 핵심 가치에 따라 사회복지 가치를 6문항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게 하는 사회복지 가치 척도를 개발하였다. 즉, 개인적 차원의 가치로 '성실성' 1문항, '능력' 1문항, 대인관계 차원의 가치로 '인간관계의 중요성' 1문항 '인간의 존엄 및 가치' 1문항, 사회적 차원의 가치로 '서비스(사회봉사)' 1문항, '사회정의' 1문항, 총 3개 차원에 각 2개 문항으로 모두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크랩트리의 사회복지 가치척도 6개 문항 가운데 '인간관계의 중요성'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 및 가치'의 2개 문항을 제외하고, 개인적 차원의 가치 2문항과 사회적 차원의 가치 2문항 총 4개 문항만을 '사회복지 가치 척도'로 사용한다. 여섯 가지 사회복지 가치 가운데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 2개 빼고 나머지 4개 가치만 보는 이유는, 이들 가치들이 '대인관계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차원의 가치와 뚜렷이 구분되기 어려운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호리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가치 척도의 1번 문항은 '사회봉사(서비스)'의 가치를, 2번 문항은 '사회정의'의 가치를, 3번 문항은 '능력'의 가치를, 4번 문항은 '성실성'의 가치를 말하며, 1-2번 문항은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 3-4번 문항은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로 구분된다. 척도에 대한 응답은 크랩트리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의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복지가치 척도의 신뢰도는 .64로 나타났다.

3) 사회복지 교육

(1) 사회복지 학위 유형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학위유형이란 학부에서 사회복지(사회사업)학을 전공한 학사(BSW; 학부 전공 학사), 학부에서 사회복지(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사회복지(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BSW & MSW; 학부 전공 학사 및 일반대학원 석사), 학부에서 사회복지(사회사업)를 전공하고 특수 및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BSW & Adjunct MSW), 학부에서 사회복지(사회사업)를 전공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특수·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BA & MSW) 등 네 가지의 학위 유형을 말한다.

(2) 사회복지 자격증 유형

본 연구에서의 사회복지 자격증 유형이란 사회복지사업법(대통령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에 의한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법(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말한다.

(3) 사회복지 교육성과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회복지 교육성과란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일반주의 실천을 토대로 문제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돕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을 말한다.

이의 측정을 위해 홀든(Holden, 2002) 등이 개발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Social Work Self-efficacy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한다. 홀든 등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는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는 에렌크란스 사회복지 대학원(Ehrenkrans School of Social Work; ESSW) 학장 5명이 모여 5대 교과영역(실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현장(실습), 정책, 조사)에서 학생들이 일반주의 실천을 위해 획득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다른 하나는 실천기술 척도(Practice Skills Inventory; PSI)(O'Hare & Collins, 1997)로서, 이는 다양한 실천 기술의 적용 빈도를 사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오하레와 콜린스는 세 가지 주요 영역-정신치료, 사례관리, 평가에서 실천 기술 척도를 위한 개념을 개발했다. 홀든 등은 반두라(Bandura)의 지침을 따라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1-19번 문항은 에렌크란스 사회복지 대학원 교수진의 연구를 토대로, 20-52번 문항은 실천기술척도를 토대로 개발하였다. 그 중 20-35번 문항은 치료기법에 관한 질문들이고, 36-42번 문항은 사례관리에 관한 질문, 43-48번 문항은 지지에 관한 질문, 49-52번 문항은 치료 평가 및 계획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저자들은 프랜스(Frans, 1993)의 사회복지 임파워먼트 척도(Social work Empowerment scale; SWE)와의 상관관계 검증을 통해 기준타당도를 확보하여 최종 척도를 구성하였다. 에렌크란스 사회복지 대학원(ESSW)의 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하위척도의 신뢰도 α 는 .93이었으며, 실천기술 척도(PSI)를 토대로 구성한 하위척도의 신뢰도 α 는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홀든 등이 개발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는 각 항목이 100점 기준에 몇 점에 해당하는지 기록하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홀든 등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 52문항을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되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응답하는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란 성, 연령, 종교, 주관적인 경제력, 최종학력 경과년도 등을 말하며, 기관관련 변수란 근무연수, 실천현장, 직위를 말한다. 여기서 실천현장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현장을 말하며, 여기에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동사무소, 그리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종합 및 대학 병원, 개인 병(의)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을 말한다. 개인특성 변수란 응답자의 자존감과 통제 소재를 말한다. '자존감 척도'로는 로젠버그-거트만(Rosenberg-Guttman) 척도를 번역한 전영실(1990)의 설문을 활용한다. 로젠버그의 자존감 척도는 매우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92의 거트만 척도 재생

산 계수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구성제타당도가 입증된 척도이다. 로젠버그(1965)의 자존감 척도는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문항의 채점은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전영실의 연구에서는 리커트식 5점 척도로 문항이 측정되었으며, 그의 연구에서 신뢰도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통제소재는 폴허스와 셀스트(Paulhus & Selst, 1990)의 「통제소재 척도」 제3판을 번역하여 사용한 정해주(1998)의 설문을 활용한다. 통제소재 변수는 개인의 자율적 자기통제와 대인통제로 나누어 측정되는데, 원 척도는 자기통제 5문항, 대인통제 4문항, 총 9문항의 리커트식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그의 연구에서 자기통제의 신뢰도 α 는 .77, 대인통제의 신뢰도 α 는 .66로 나타났다. 설문 문항 중 11-15번 문항은 자기통제에 관한 질문이며, 16-19번 문항은 대인통제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 10문항과 통제소재 9문항, 총 19문항을 개인 특성 변수로 보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리커트식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 α 는 .68, 통제소재 척도의 신뢰도 α 는 .82로 나타났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11.5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즉, 조사 대상의 기술통계 분석, 사회복지 학위와 자격증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 가치와 옹호를 살펴보는 일원변량 분석과 t-검증, 사회복지 교육성과와 사회복지 가치 및 옹호간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의 내적신뢰도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문헌 연구를 토대로 자가 개발한 척도의 기준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 관련 문항과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였고, 구성타당도의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분석 전의 사전검증으로 톨러런스(Tolerance)와 분산확대지수(VIF)를 검사함으로써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보았다. 본문에서는 자료를 표준화시킨 후에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회귀계수(β 값)를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매개변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 분석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의 회귀분석 조합을 통한 매개변수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IV. 결론

1. 연구결과 및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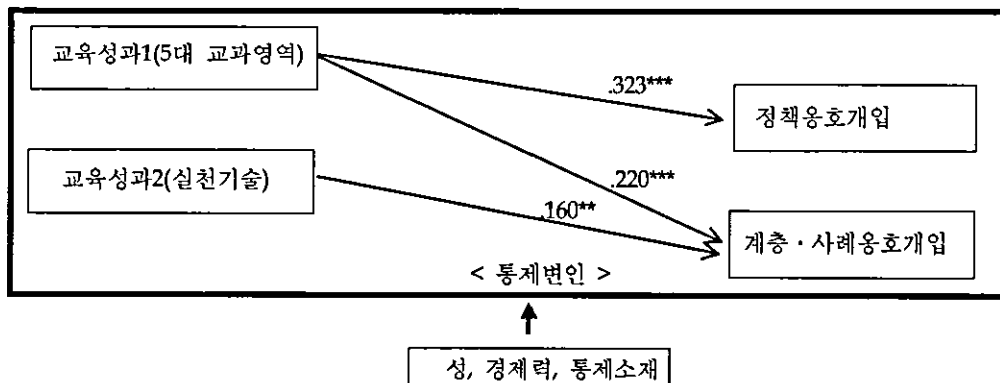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옹호간의 가설검증 결과, 사회복지 교육변인들 가운데 옹호태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교육을 학위유형과 자격증, 교육성으로 제한하였으며, 옹호태도를 사회변화 지향태도로 제한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복지사의 사회변화 지향태도 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변화에 누구보다도 민감하며 사회변화와 관련된 문제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러나 교육 연한이나 자격증, 교육의 성과 그 어느 것도 옹호태도 즉, 사회변화 지향 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 형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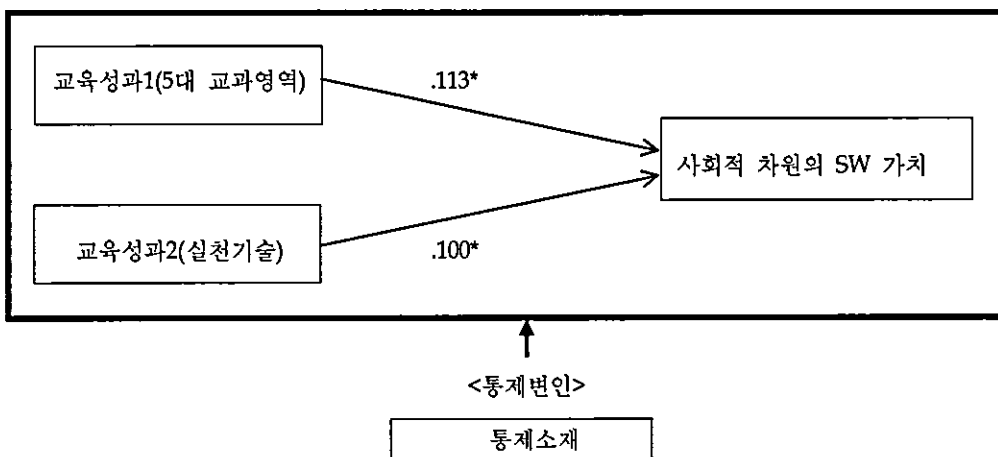
반면, 사회복지 교육이 정책옹호 개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17.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성(sex), 통제소재, 학위유형2(학부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일반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석사학위 취득: BSW & MSW)($\beta = -.114$), 교육성과1(5대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 = .323$)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볼 때, 사회복지사가 정책옹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회복지 교육 요소는 실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습, 정책, 조사라는 사회복지 5대 영역으로서 정책옹호 개입에 있어 기본 영역 교육의 중요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학부와 일반대학원 석사일수록 정책옹호 개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로부터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교육이 계층 및 사례옹호 개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21.5%로서 정책옹호 개입에 비해 훨씬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교육성과1(5대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 교육성과2(실천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옹호를 설명하는 데에는 학력(학위의 유형)이라는 변인이 유의미하다는 특징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주로 개입하게 되는 계층 및 사례옹호의 경우에는 교과교육 내용의 영향력이 보다 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옹호적 실천을 고려해볼 때, 5대 교과영역뿐 아니라 개인 및 집단 대상의 개입 기술을 주로 교육하는 실천기술에 대한 교육의 결과가 사회복지 계층 및 사례옹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학위나 자격증 유형이 옹호개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평균비교의 결과는 계층 및 사례옹호 개입에서 집단간 근소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v=3.375, p<.05$). 그 경향을 살펴보면, 학부 비전공 석사($m=3.70$)의 계층 및 사례옹호 개입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부 전공 특수대학원 석사($m=3.58$), 학부 전공 학사($m=3.4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계층 및 사례옹호 개입의 정도는($m=3.60$) 정신보건사회복지사($m=3.44$)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보다 사회복지사들이 계층 및 사례옹호 개입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옹호 실천이라는 면만을 고려해 볼 때, 학사보다 석사가 그 개입의 정도가 높고, 사회복지사들이 정신보건사회복지사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복지적 이슈에 대한 옹호적 개입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p<.05$, ** $p<.01$, *** $p<.001$ <그림 IV-1>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옹호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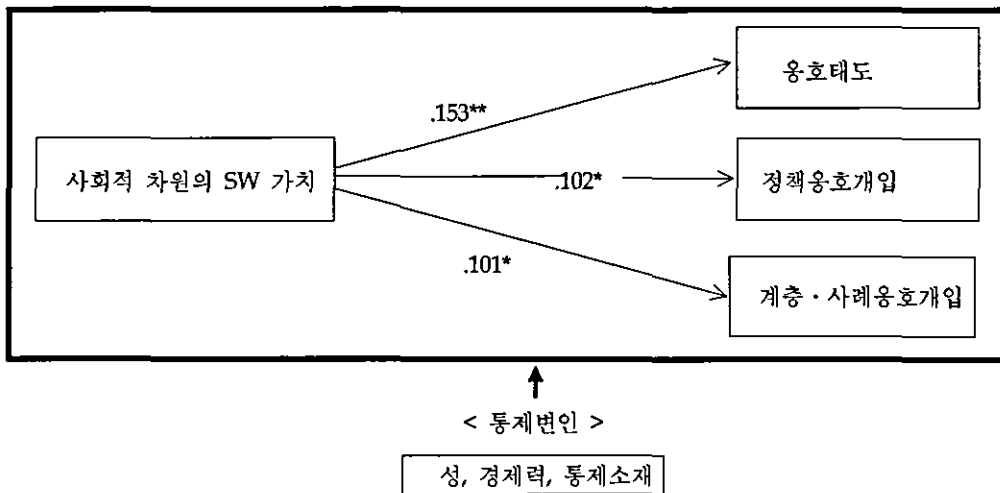
둘째,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간의 가설검증 결과, 사회복지 교육이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설명하는 정도는 9.8%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들은 통제소재, 교육성과1(5대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113$), 교육성과2(실천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beta=.100$) 순으로 나타났다. 비록 영향력의 정도는 작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5대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실천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갖는 것이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형성하는데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나 학위의 수준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교과교육을 실시할 때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잘 습득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에게 중요한 사회적 차원의 가치 함양에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 $p<.05$, ** $p<.01$, *** $p<.001$

<그림 IV-2>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관계

셋째,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와 사회복지 옹호간의 가설검증 결과,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사회복지 옹호태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9.2%로 나타났으며, 정책옹호 개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10.9%, 계층 및 사례옹호 개입을 설명하는 정도는 13.4%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사회복지 옹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의미한 변인들은 통제소재,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beta=.153$), 경제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정책옹호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의미한 변인들은 통제소재, 성,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beta=.102$)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계층 및 사례옹호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유의미한 변인은 통제소재, 성, 간부직위 유무,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beta=.10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사회복지 옹호태도나 정책옹호, 계층 및 사례옹호 개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영향력의 정도는 사회복지 교육성과가 사회적 차원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처럼 그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교육성과가 사회적 차원의 가치나 옹호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교과내용 교육시 사회변화에 대한 시각 형성과 사회적 차원의 가치형성, 또는 옹호 등에 관한 강조가 더 요청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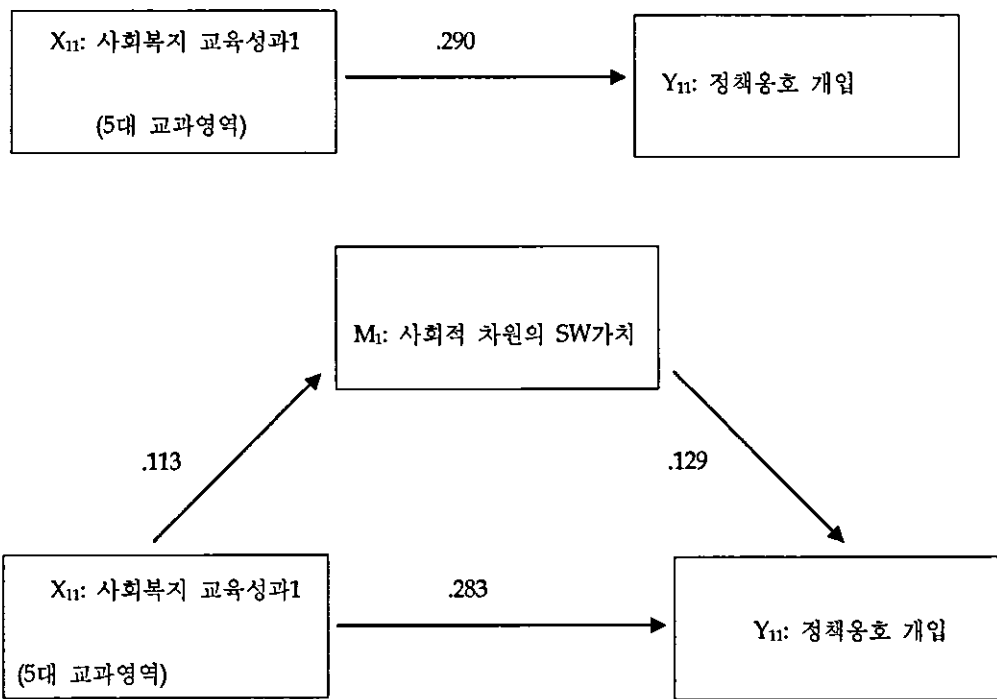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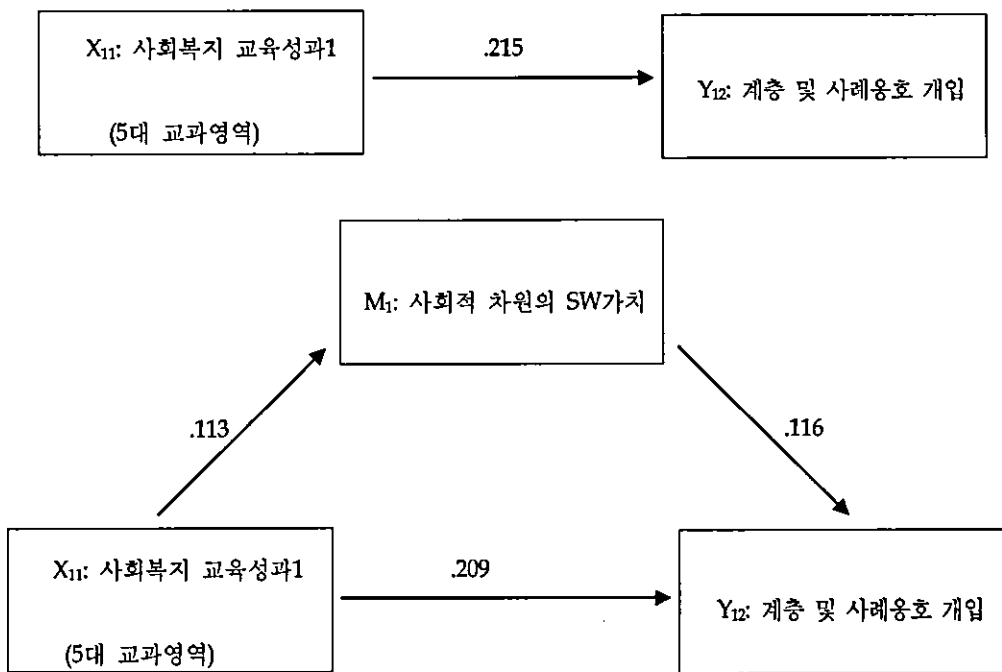
<그림 IV-3>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와 사회복지 옹호의 관계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매개변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교육 변인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사회복지 교육성과 변인의 회귀계수(B) 변화 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책옹호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성과 1(5대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회귀계수는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보다 줄어들었다. 또한 1단계와 2단계에서 사회복지 교육성과 1 변인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층 및 사례옹호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성과 1(5대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사회복지 교육성과 2(실천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 변인의 회귀계수가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보다 줄어들었다. 또한 1단계와 2단계에서 사회복지 교육성과 1(5대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교육성과 2(실천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 변인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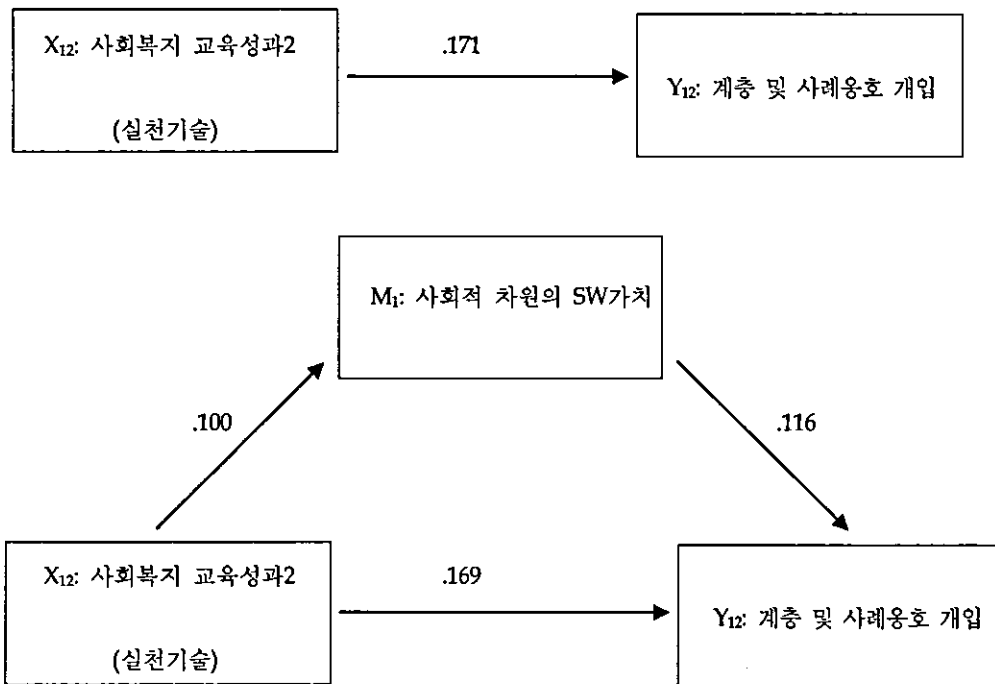
가치가 배제된 직업은 전문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전문직을 규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속성론(trait model)에 의하면 전문직이 수행하는 기술, 전문적 권위, 사회로부터의 권한과 특권, 전문직 자체의 가치와 윤리강령, 전문직 고유의 문화가 있어야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태성 외, 1997). 따라서 사회복지 교육성과가 사회복지 옹호개입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복지 가치가 매개변수 역할을 한다는 연구결과는,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사회복지 전문직에게 하는 데에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공 교육을 할 때, 사회복지 교육성과를 높이고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형성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사회복지 옹호개입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림 IV-4> 사회복지 교육성파1(5대 교과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정책옹호 개입 사이에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매개효과



<그림 IV-5> 사회복지 교육성파1(5대 교과영역)과 계층 및 사례옹호 개입 사이에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매개효과



<그림 IV-6> 사회복지 교육성과2와 계층 및 사례옹호 개입 사이에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매개효과

<표 IV-1>은 사회복지 교육성과가 사회복지 옹호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간접효과를 표로 정리하여 그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교육성과가 정책옹호, 계층 및 사례옹호 개입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간접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매개변수 효과가 작게 나타났지만, 사회복지 교육성과와 옹호개입 사이에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가 매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옹호개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과영역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성과를 높여 자기효능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높이는 것 사회복지 옹호개입에 대한 총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표 IV-1> 바론과 케니(1986)의 매개변인 효과 분석법에 의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간접 및 직접효과

구 분	5대 교과영역이 정책옹호 개입에 미치는 영향	5대 교과영역이 계층· 사례옹호 개입에 미치는 영향	실천기술이 계층· 사례옹호 개입에 미치는 영향
직접 효과	0.283	0.209	0.169
간접 효과	0.015	0.013	0.012
인과적 효과	0.298	0.222	0.181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의 함의는 여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론적 함의는 사회복지 교육과 사회복지 옹호 사이에서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매개 역할을 최초로 확인해 봄으로써 사회복지 가치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사회복지 옹호에 대한 연구의 이론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둘째, 사회복지 교육에 대한 실천적 함의는 ①사회복지 옹호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사회복지 교육이 기여하기 위해 일반주의 실천의 토대가 되는 사회복지 5대 교과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②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천기술'을 습득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③사회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셋째, 기관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실천적 함의는 사회복지를 사회에서 인정받은 인간원조 전문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옹호 개입을 의도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계층 및 사례옹호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사회복지 실천은 정책의 변화와 연결되지 않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옹호는 특정 실천현장의 실천가에게 더 유용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계층 및 사례옹호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실천의 전제가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의 자원과 기회를 증진하고 사회정의 실현하는데 있다는 것을 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널리 알리기 위하여 ①학부와 대학원 교과과정의 차별화를 실시하며 교육 목표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②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사회복지 가치의 균형 잡힌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 교과과정에서 강조하고 두 가치를 각 교과목에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정책적 함의는 ①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제시에 앞서 윤리강령에 대한 실증적 권위를 확보하고 ②사회복지 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무를 윤리강령에서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으며 ③사회복지의 핵심가치가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④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여섯째,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는 한국도 미국과 같이 사회복지사가 법정에서의 판결과 관련된 업무, 상담치료 업무와 관련된 업무 등에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 개정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가 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간원조 전문가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데 있다.

참 고 문 헌

- 김태성, 최일섭, 조홍식, 윤현숙, 김혜란. (1998). 「사회복지 전문직과 교육제도」. 도서출판 소화.
- 전선영. (1995). "정신의료사회사업 실천에서의 문제해결 모델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취일. (2003). "지역사회 취약계층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활동 전략." 서울여자대학교 제 9회 실습 지도자간담회 자료집.
- _____. (2003). "제너럴리스트 실천적용 활성화 방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세미나 자료집.
- Abramvitz, M. (1998). Social Work and Social Reform: An Arena of Struggle. *Social Work*, 43(6), 512-52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Choi, Il Sub. (1977). Microscopic vs. Macroscopic Orientations of Korean Social Workers Regarding the Problem of Poverty: A Descriptive Study. Ph.D. Dissertation,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Cohen, J. (1971). Advocacy and the Children's Crisis: An Invited Commentar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1, 807-808.
- Crabtree, C. R. (2000). Who We Really Are: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Attainment and Social Work Value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Fitzsimons-cova, Nancy M. (1997). Social Work Educ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National Survey of University Affiliated Program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Frumkin, M. & Lloyd, G. A. (1995) Social Work Education. In Beebe (Ed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NASW Press. 1995
- Gibelman, M. (1999). The Search for Identity: Defining Social Work-Past, Present, Future. *Social Work*, 44(4), 298-310.
- Harbison, J. R. (1991). Value Orientation and Career Aspirations of Those Pursuing an MSW Degree: Does the BSW Make a Differ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Haynes, K. S. (1998). The One Hundred-Year Debate: Social Reform versus Individual Treatment. *Social Work*, 43(6), 501-509.
- Imre, R. W. (1982). *Knowing and Caring*. Lanham, MD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Loewenberg, F. M. & Dolgoff, R., & Harrington. (2000). *Ethical Decis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6th Ed.). Itasca, Illinois: F. E. Peacock.
- Mandell, B. R. (1992). Firing up Students for Social Change: Some Teaching Tactics for the 1990s. *Journal of progressive Human Services*, 3(1), 53-70.
- Mickelson, J. S. (1995) Advocacy. In Beebe (Ed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NASW Press.
- Radian, E. (2000). Social Action and Social Work Education in Canad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gary.
- Reeser, L. C. (1986). Professionalization and Social Activism. Ph.D. Dissertation, Bryn Mawr College.
- Reeser, L. C. & Epstein, I. (1990). Professionalization and Activism in Social Work: the Sixties, the Eighties, and the Fu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eisch, M. (1986). From Cause to Case and Back Again : The Reemergence of Advocacy in Social Work.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9, 20-24.
- Rokeach, M. J. (1970).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Scheel, J. L. (1997). *Personal and Values of Private and Agency Social Workers*. DSW dissertation, Yeshiva University.
- Shank, B. W. (1993).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ist Practice Framework and Job Tasks Performed by Baccalaureate Social Worker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Specht, H. (1990, September). Social Work and the Popular Psychotherapies. *Social Service Review*, 345-357.
- Specht, H. & Courtney, M. E. (1994). *Unfaithful Angels : How Social Worker Has Abandoned Its Mission*. New York : Free Press/Macmillan.
- Sweatt, L. I. (1999). *An Exploration of Psychologists' Social and Professional Advocacy Attitudes and Involvement*, Ph.D. Dissertation, Loyola University Chicago.

ABSTRACT

A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 social work educations, values and advocacy

Jeon, S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Korean social workers' level of social work values, advocacy attitude and advocacy intervention, and to verify the relations among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advocacy and social work values by examining whether social work education influences social work advocacy and social work values, and whether social work values affect social work advocacy. Further, this study wishes to confirm not only the direct effect that social work education has on social work advocacy, but also how social work education indirectly influences social work advocacy through social work values on the social level as a mediator.

The research of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61 social work practitioners who have obtained either social worker licenses or mental health social worker licenses and are currently working in the field. As survey tools, this study utilized social work advocacy attitude, social work advocacy intervention, outcomes of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values, self-esteem and locus of control.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PC+ 11.5 for one-way ANOVA and t-test, Pearson's correlation,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o sum up the results of the study in terms of the research hypothesis, the research hypothesis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analysis method of the testing mediation of Baron & Kenny (1986)

in order to examine whether social work values on the social level intervene between social work education and social work advocacy. The results of the hypothesis test confirm that social work values on the social level serve as a mediator variable.

Key words: social work educations, social work values, social work advocacy